성원에 감사드리며...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들께서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역대 회장님들과 회원 여러분들의 열성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학회 임원진과 사무국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대과없이 임기를 마치게 된 것을 회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006년은 한국고분자학회 창립 30주년이 된 해였습니다. 그간 우리 학회가 국내 굴지의 학회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역대 회장님들의 훌륭하신 지도력과 역대 임원 및 회원들의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학회 사랑과 산업계 회원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1년간 학회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기념 사업과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산업계를 위시하여 학계와 연구원계로부터 폭넓은 성원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산업계의 아낌없는 지원은 여러 가지 기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춘계학술발표회에서는 역대 춘계 최대 등록자수보다 400여명 증가한 1,602명을 기록하였고, 논문발표수도 역대 춘계 최대 발표수보다 100여 편 증가한 808편에 이르러, 우리 학회가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국내 학술 단체 중에서 타 학회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의 학회로 자리 매김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대토론회는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치게 되었으며, 또한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는 25개국에서 1,957명이 참가하여 논문 1,229편이 발표되어, 그 규모가 컸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우리 학회가 국제적인 수준에 있음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에는 학회 창립 이래 처음 산업계 회장을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함으로써 회장 선출 제도에 혁신을 가져왔으며, 이것은 학회의 발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 앞으로 산업계로부터 많은 회원들이 학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집호 편집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발간된 30주년 기념 특집호는 학회가 지나온 발자취뿐만 아니라, 학계, 연구소 및 산업계 연구 현황 등의 데이터뱅크도 담고 있어,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재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춘계학회를 원활히 수행해주신 김병철 학술위원장님을 비롯한 학술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김성철(KAIST) 조직위원장님, 안광덕(KIST) 학술위원장님, 이두성(성균관대) 사무총장님 및 사무국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창립 30주년 기념 특집호를 편집 발간함에 있어 특집호 편집위원장을 맡아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허완수(숭실대) 교수님을 비롯한 특집호 편집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학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안광덕(KIST) 수석부회장님, 윤진산(인하대), 이영관(도레이새한(주)), 최길영(한국화학연구원) 부회장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학회 업무와 행사를 총괄하고 탁월하게 이끌어주신 김정안(경희대) 전무이사님, 학회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주신 김철희(인하대) 총무이사님과 운영이사님들, 그리고 학회 사무국 김화순 실장님과 사무국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업무를 함께 수행한 23대 임원님들과 운영이사님들과의 보람된 시간과 소중한 인연을 가지게 된 것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며 큰 영광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국고분자학회 회원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우리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월 1일

전임회장 **김 봉 식**